

##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 1. 1998년도 건설경기 동향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8년도 건축허가 동향'에 따르면 년초 주거용 건축허가면적등이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국내 경기침체의 악화로 건축허가면적의 감소폭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98년도 총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113,374천㎡에 비하여 55.0%감소한 50,965천㎡이 허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31,155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677천㎡에 비하여 50.3%감소하는 부진을 보였으며,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27,920천㎡에 비해 68.6% 감소한 8,754천㎡가 허가되었다. 또한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경기 하강과 기업의 자금난 및 부도로 공장의 신·증설 및 설비투자가 극히 부진을 보여 전년대비 68.2%감소한 2,796천㎡가 허가된데 그쳤고 문교·사회용 등 기타 건축허가 면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80㎡에 비해 40.9% 감소한 8,260㎡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 IMF 관리체제에 편입된 이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수주물량의 감소,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주택경기를 비롯한 부동산 경

기의 침체 속에서 98년 공사계약액은 97년 797,416억원 대비 40.8% 감소한 471,8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경기 불황으로 주상복합건물, 공장설비등의 발주가 전무하였고 공공주택 신축 및 재건축, 재개발의 부진 등 그 동안 건설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민간 건축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이 294,965억원으로 전년 354,133억원 대비 16.8% 감소한 데 반하여 민간부문은 176,882억원으로 전년 443,283억원 대비 6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토목공사가 전년 337,331억원 대비 26.0%감소한 249,525억원이었으며 건축부분은 222,324억원으로 전년 460,085억원 대비 51.7%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98년 한해 동안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 주택건설현황을 살펴보면 98년 1년동안 건설된 주택은 총 306,031호로서 전년 동기의 596,435호보다 4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실질소득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주택수요의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별로 4월 이후 월별 주택건설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0% 이상 감

(표 1) 1998년도 월별, 용도별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

월별	용도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1월		6,137 (-16.8)	4,319 (12.2)	1,059 (-46.0)	226 (-65.9)	533 (-40.8)
2월		5,822 (-7.3)	3,435 (9.8)	1,109 (-31.5)	213 (-62.9)	1,065 (10.9)
3월		5,653 (-38.6)	3,570 (-24.0)	1,014 (-59.8)	312 (-71.6)	757 (-14.6)
4월		4,253 (-58.1)	2,500 (-52.6)	736 (-70.3)	296 (-69.5)	721 (-49.4)
5월		4,163 (-65.2)	2,338 (-65.3)	1,064 (-64.7)	172 (-77.2)	589 (-59.3)
6월		4,510 (-54.3)	2,784 (-50.0)	830 (-62.5)	206 (-73.1)	690 (-48.0)
7월		3,387 (-63.5)	1,964 (-61.8)	406 (-82.8)	213 (-72.0)	804 (-20.4)
8월		2,356 (-70.1)	1,199 (-68.7)	360 (-84.9)	199 (-73.2)	598 (-34.2)
9월		3,219 (-57.6)	1,622 (-59.6)	742 (-58.7)	245 (-61.9)	610 (-47.0)
10월		2,050 (-79.9)	1,085 (-81.3)	358 (-85.5)	203 (-74.2)	404 (-64.6)
11월		3,933 (-57.7)	2,607 (-47.8)	425 (-83.6)	240 (-50.5)	661 (-46.5)
12월		5,481 (-61.6)	3,732 (-61.2)	651 (-74.0)	271 (-51.0)	827 (-48.0)
총 계		50,964 (-55.0)	31,155 (-50.3)	8,754 (-68.6)	2,796 (-68.2)	8,259 (-40.9)

주 : ( )는 전년대비 전년동기 증감율임.  
자료 : 건설교통부

(표 2) 1998년도 건설계약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97 년 도	합 계	797,416	337,331	460,085	354,133	272,830	81,303	443,283	64,501	378,782
	상반기	394,109	157,518	236,591	148,428	119,754	28,674	245,681	37,764	207,917
	하반기	403,307	179,813	223,494	205,705	153,076	52,629	197,602	26,737	170,865
98 년 도	합 계	471,847	249,525	222,324	294,965	226,669	68,296	176,882	23,353	154,029
	(증감율)	(-40.8)	(-26.0)	(-51.7)	(-16.8)	(-16.9)	(-16.0)	(-60.0)	(-63.8)	(-59.3)
	상반기	240,548	123,772	116,776	137,249	111,474	25,775	103,299	12,298	91,001
	(증감율)	(-39.0)	(-21.4)	(50.6)	(-7.5)	(-6.9)	(-10.1)	(-5.8)	(-67.4)	(-56.2)
하반기	231,299	125,753	105,548	157,716	115,195	42,521	73,583	11,055	63,028	
(증감율)	(-42.6)	(-30.1)	(-52.8)	(-23.3)	(-24.7)	(-19.2)	(-6.3)	(-58.7)	(-63.1)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표 3) 1998년도 주택건설 추세

(단위 : 호, %)

구분	98 1-5	98.6	98.7	98.8	98.9	98.10	98.11	98.12
건설실적	136,626	29,516	22,144	10,830	18,784	11,956	28,584	47,591
전년동기	223,482	56,770	44,170	41,388	42,585	55,370	42,246	90,424
증감율	-38.9	-48.0	-49.9	-73.8	-55.9	-78.4	-32.3	-47.4

(표 4) 1998년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분	98.5	98.6	98.7	98.8	98.9	98.10	98.11	98.12
미분양 주택수	108,339	112,155	116,433	114,405	110,025	106,612	106,264	102,701
전월대비	6.5	3.5	3.8	-1.7	-3.8	-3.1	-0.4	-3.4

소하였으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증가되어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48,669호가 건설되어 지난해보다 35.2% 감소하였고, 지방은 157,362호로서 5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수는 7월을 고비로 지난 8월에 소폭 감소된 이후 5개월째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5)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

(단위 : 호, %)

지역별	년도별		전년대비 증감율	
	1997년	1998년		
계	596,435	306,031	-48.7	
수도권	서울	70,446	28,994	-58.8
	인천	19,671	9,042	-54.0
	경기	139,253	110,633	-20.6
	지방	367,065	157,362	-57.1

## 2. 1998년도 레미콘 산업동향

경기가 침체의 긴 터널로 빠져들면서 98년도 레미콘산업은 민간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대형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이로 인한 신규

발주물량의 감소 및 기존 현장의 공사중단 등으로 사상초유의 수요감소와 가동률 하락, 연쇄부도를 경험하였고 건설업체의 부도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부담, 금리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환경 전반에 걸쳐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98년도 한해 동안 레미콘산업은 전년 133,196,735m³보다 27.9%감소한 96,083,697m³를 생산하여 1965년 국내에 처음 레미콘산업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며 94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표.6에서와 같이 연간 생산능력은 324,396천m³으로 전국 평균 가동률은 29.6%를 나타내 전년 42.0%보다 무려 1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인지역은 103개업체 155개공장에서 97,500천m³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40.1%의 가동률을 나타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가동률을 나타내었지만 이외 지역은 20%대의 저조한 가동률을 나타내었다.

레미콘 생산실적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중에는 건설업체와 중소레미콘업체등을 중심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가운데 레미콘 출하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져 전년 동기 61,829,577m³ 대비 25.0% 감소한 46,379,266m³를 생

(표 6)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1998년 12월31일 현재)

구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배치플랜트			레미콘 믹서트럭 보유대수	시멘트 사이로 (Ton)	가동률 (%)
			기 수	생산능력(B/P)				
				m <sup>3</sup> /hr	천m <sup>3</sup> /년			
서울·경인	103	155	261	48,780	97,560	7,453	166,820	40.1
강 원	72	81	88	11,960	23,920	1,184	39,650	20.8
충 북	43	46	55	7,800	15,600	912	25,230	25.6
대전·충남	73	93	122	19,434	38,868	2,123	79,550	24.1
전 북	49	54	69	11,000	22,000	1,170	40,790	24.1
광주·전남	62	76	94	15,210	30,420	1,899	53,560	28.1
대구·경북	90	102	135	21,084	42,168	2,356	98,490	24.3
부산·경남	93	106	149	24,050	48,100	3,120	109,440	27.2
제주	15	15	19	2,880	5,760	309	9,930	24.5
전국총계	560	728	992	162,198	324,396	20,526	623,460	29.6

-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 임.

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98년도 상반기중 경기부양을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되었고 도로, 교량, 항만등 SOC시설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시설등 전년에 계속되던 공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관수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97년 말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던 민간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정부가 미등기 전매허용, 수도권지역의 분양가 자율화 확대, 전세반환금 대출, 표준건축비 수시조정등 관련 규제의 완화, 주택자금지

원등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극도로 침체된 민간건설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 민수의 출하량이 전 지역에 걸쳐 20%이상 감소됨으로써 관수용 레미콘이 전년에 이어 전체 레미콘산업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반기 이후 레미콘업체의 부도 행진은 일단 멈추었으나 민간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몇몇 현장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진척이 느려져 상반기에 비하여 상대

(표 7) 1998년도 분기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sup>3</sup>, %)

구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3/4분기	4/4분기	하반기	년간
'97년	22,946,609	38,882,968	61,829,577	33,596,864	37,770,294	71,367,158	133,196,735
'98년	18,309,762 (-20.2)	28,069,504 (-27.8)	46,379,266 (-25.0)	23,699,508 (-29.5)	26,004,923 (-31.1)	49,704,431 (-30.4)	96,083,697 (-27.9)

주 : ( )는 증감율임

(표 8) 1998년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sup>3</sup>, %)

지역	수요별	1998년	1997년	증감율	점유율
서울·경인	민수	32,539,068	44,370,753	-26.67	40.76
	관수	6,620,675	6,493,641	1.96	
	계	39,159,743	50,864,394	-23.01	
강원	민수	3,296,376	5,273,445	-37.49	5.17
	관수	1,673,053	1,850,497	-9.59	
	계	4,969,429	7,123,942	-30.24	
충북	민수	2,870,835	4,862,591	-40.96	4.15
	관수	1,120,403	994,776	12.63	
	계	3,991,238	5,857,367	-31.86	
대전·충남	민수	7,001,848	11,107,144	-36.96	9.75
	관수	2,369,089	2,620,360	-9.59	
	계	9,370,937	13,727,504	-31.74	
전북	민수	3,530,816	4,849,404	-27.19	5.52
	관수	1,770,079	1,714,818	3.22	
	계	5,300,895	6,564,222	-19.25	
광주·전남	민수	5,800,306	8,830,745	-34.32	8.90
	관수	2,749,653	2,655,553	3.54	
	계	8,549,959	11,486,298	-25.56	
대구·경북	민수	6,936,847	12,506,685	-44.53	10.68
	관수	3,327,126	3,157,262	5.38	
	계	10,263,973	15,663,947	-34.47	
부산·경남	민수	9,175,694	16,248,479	-43.53	13.60
	관수	3,887,846	3,851,123	0.95	
	계	13,063,540	20,099,602	-35.01	
제주	민수	731,822	1,195,642	-38.79	1.47
	관수	682,161	613,817	11.13	
	계	1,413,983	1,809,459	-21.86	
합계	민수	71,883,612	109,244,888	-34.20	100.0
	관수	24,200,085	23,951,847	1.04	
	계	96,083,697	133,196,735	-27.86	

적으로 관수 레미콘의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기 71,367,158m<sup>3</sup>대비 30.4%감소한 49,704,431m<sup>3</sup>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부산·경남지역의 출하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부산·경남지역은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침체로 레미콘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가동율이 전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20,099,602m<sup>3</sup>대비 35.01% 줄어든 13,063,504m<sup>3</sup>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구·경북지역도 민간건설경

기의 하락으로 민수는 전년 12,506,685㎡대비 44.53%감소한 6,936,847㎡를 출하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5.38%증가한 3,327,126㎡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어 98년 총 10,263,973㎡를 출하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충북지역(-31.86%) 대전·충남지역(-31.74%), 제주지역(-30.24%),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수 수요별 레미콘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민수 레미콘의 급격한 감소에 비해 관수 레미콘은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민·관수 출하의 양극화 현상이 전년에 비하여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민수는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민간

건설경기의 침체를 반영 전년 109,244,888㎡ 대비 34.20%감소한 71,883,612㎡를 생산하였다. 반면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을 턴키베이스로 전환하면서 감소추세에 있던 관수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 및 투자에 힘입어 충북, 제주 등 일부지역은 10%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외 지역에서 관수 출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전년 23,951,847㎡ 대비 1.04%증가한 24,200,085㎡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체 출하량에서 관수의 비중이 전년에 이어 계속 증가하면서 93년 이후 처음으로 20%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레미콘산업은 98년 민간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금융 위기로 인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및 신규 발주 물량의 감소, 기존 현장의 공사중단 등으로 레미콘 출하물량의 감소폭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으며 레미콘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경쟁을 유발하여 업체들의 영업환경 및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레미콘 생산, 관리, 물류과정 등에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레미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레미콘 업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정부도 SOC를 위시한 정부공사에 대한 과감하고도 집중적인 투자와 이미 가시화된 각종 민간건설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표 9) 년도별 민·관수 출하 현황  
(단위 :㎡, %)

수요별 년 도	민 수	관 수	총 계
1993년	71,528,120 (78.5)	19,543,054 (21.5)	91,071,174 (100)
1994년	85,829,051 (80.5)	20,762,884 (19.5)	106,591,935 (100)
1995년	94,991,463 (82.8)	19,739,634 (17.2)	114,731,097 (100)
1996년	105,181,550 (83.6)	20,624,215 (16.4)	125,805,765 (100)
1997년	109,244,888 (82.0)	23,951,888 (18.0)	133,196,735 (100)
1998년	71,883,612 (74.8)	24,200,085 (25.2)	96,083,697 (100)

주) ( )는 전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요별 점유비율.